

“열심히 공부하며 역사에 큰 관심 갖게 됐어요”

찾아가는 여순사건 골든벨-여수무선중

진상규명·명예회복 공감대 확산
자료집 열심히 공부 99명 참여
정답·오답자, 환호와 탄성 교차
치열한 접전 끝 1등에 김경민군

“친구가 1등 할 수 있다. 파이팅!”
17일 오후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이 열린 여수 무선중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남일보·전일엔컬스가 주최·주관하고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골든벨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를 맞아 역사의 진실 공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골든벨에는 여수무선중 3학년 학생 99명이 참가했으며, 교사와 다른 학생들도 응원석에 앉아 큰 목소리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비극적 현대사인 여순사건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국가권력 탓에 70여년간 방치되 다시피 했다”며 “다행히 2021년 7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여순사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행사가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전국화를 통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규태 여수 무선중 교감은 축사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골든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 이번 골든벨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골든벨 참가 학생들에게는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에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피해, 영향 등이 담긴 자료집이 별도로 제공됐다. 일부 학생들의 자료집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잔뜩 그어져 있는 등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날 진행을 맡은 양홍석 여수와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시작을 알리자,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 자료집을 살피던 여수 무선중 학생들은 무릎에 화이트보드를 올려두고 손에 마카를 든 채 귀를 쫓긋 세웠다.
‘OX 퀴즈’로 치러진 예선전부터 학생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첫 번째로 출제된 ‘여순사건은 8·15 광복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문제에 참가자 대부분이 정답인 X를 써내면서 학생들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이 연달아 정답을 맞히면서 긴장감이 강당 내부를 가득 메



여수 무선중학교 황규태 교감과 3학년 학생,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 등이 17일 무선중 체육관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웠다.
답을 맞춘 학생들은 기쁨의 환호를, 답을 틀린 학생들은 아쉬운 탄식을 내뿔으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였다.
예상외의 접전 속에 예선에서 많은 문제를 치르고 나서야 본선 진출자 30여명 가량이 가려졌다.
탈락한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뒤쪽으로 가서 친구들을 응원하거나 패자부활전을 기다리며 열심히 자료집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패자부활전에서는 ‘1948년 10월25일 순천과 여수에 선포된 임시계엄령은 당시 사령관이 법적 근거 없이 내린 명령이다’는 OX퀴즈에 20여명의 학생이 정답을 맞

히면서 다시 최후의 1인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정답을 맞춘 학생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화이트보드를 들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후반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금지곡으로 지정된 노래로, 여순사건의 내용을 다룬 노래의 제목’을 묻는 문제에 정답인 ‘여수야화’를 적어낸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애국가’, ‘너무 슬퍼’, ‘어떡해’, ‘불타오르네’ 등 웃음을 자아내는 오답들이 쏟아지며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치열한 퀴즈 풀이 끝에 수상자 4명이 탄생했으며 이중 최후의 1인으로 김경민군

이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고 △최우수상 강시현양 △우수상 김다영양 △장려상 김연서양이 선정됐으며, 문화상품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됐다.
1등의 영예를 안은 김경민군은 “오늘 골든벨을 앞두고 여순사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서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1등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너무 뿌듯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은 오는 21일 순천 별량중학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국정감사서 법원별 5·18 손해배상 위자료 형평성 지적

광주지법원장 “재판부끼리 논의 중”
5·18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법원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000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분

명히 문제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끼리 소통을 하며 위자료 인정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한강 “글쓰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쓴다”

2017년 전남대 인터뷰 재조명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7년 전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작가와와 대화’에 출연해 발언했던 내용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지난 2017년 전남대가 주관한 올해의 한 책에 자신의 소설 ‘흰’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6월 전남대 융지관 컨벤션 홀에서 열린 한 책 토크 콘서트에서 작가로서의 삶과 자신의 작품 등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 작가는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빛을 향해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며, 그것의 결과물이 내가 쓴 글”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그렇게 힘들게 글을 쓰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쓰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며, “내 소설을 어둡고, 힘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부족한 사람이 싸우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작가는 특히 “남극에서는 냉장고 없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쓰지 않고 느끼는 고통보다 덜 힘들다”면서 “그것이 작가로서의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청중과 소설의 주요 부분을 번갈아 낭독한 뒤 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담하게 밝히고, 책을 낭독한 청중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김은지 기자

개발제한 해제 집단취락 ‘방치’... 광주 집행률 최하위권

11%로 전국 2번째...전남은 57%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광주지역은 11%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명수(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만 6881㎡

중 44.8%에 불과한 1133만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188개 취락 중 11%만 집행돼 11개 취락 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은 세종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은 200개 취락 중 57%가 집행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환김에’ 생후 6개월 딸 15층서 던져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7년

“심신미약 인정... 감경 사유 안돼”
남편과 싸우다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누락됐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

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해 범행이 아주 무겁고, 남편에게도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